



23일(한국시간) 스페인 리그 R.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마수걸이 골을 터트린 이강인(왼쪽)과 같은 날 프랑스 리그 몽펠리에와의 경기에서 25m 중거리 슛을 터트린 황의조.



연합뉴스

신바람 유럽파 ‘펄펄’ 벤투는 ‘방긋’

이강인 마수걸이·황의조 벼락골·황희찬 만점 데뷔전
월드컵 최종예선 최대 고비 '10월 2연전' 앞뒤 희소식

한국 축구의 유럽 리거들이 모처럼 소속팀에서 동시에 신바람을 내 '고비'의 10월을 앞둔 파울루 벤투 대표팀 감독을 미소 짓게 하고 있다. 부상 등으로 주춤하는 듯했던 손흥민(토트넘)과 황의조(보르도)가 페이스를 되찾아가는 가운데, 여름 이적시장에서 팀을 옮긴 유럽파 후배 선수들이 빠르게 새 환경에 적응하고 있다. 이적 후 첫 공격포인트가 늦어져 팬들을 애타게 했던 '막내' 이강인(마요르카)이 23일(이하 한국시간) 드디어 마수걸이 골을 터뜨렸다. '허머' 레알 마드리드와의 정규리

그 원정 경기(마요르카 1-6 패)에 선발 출전해 팀이 0-2로 뒤지던 전반 25분 골대 왼쪽 하단 구석에 꽂히는 왼발 중거리 슛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좀처럼 출전 기회를 주지 않던 발렌시아를 떠나 마요르카에 새 동지를 틈 뒤 3경기 만에 올린 첫 공격포인트다. 9월 A매치에서 부진에 종아리 부상까지 겹쳤던 황의조는 컨디션을 빠른 속도로 회복해가고 있다. 황의조는 이날 몽펠리에와 원정 경기(3-3 무승부)에서 전반 18분 벼락같은 중거리슛으로 1-1 동점골을 넣었다. 지난 19일 생테티엔을 상대로 1, 2

호골을 넣은 황의조는 2경기 연속골을 신고하며 '부활'을 선언했다. 잉글랜드에서는 '에이스' 손흥민이 종아리 부상을 예상보다 일찍 떨치고 그라운드로 복귀한 가운데 새 프리미어리거 황희찬(울버햄프턴)이 주가를 높이고 있다. 지난 12일 울버햄프턴 데뷔전이던 왓퍼드와의 정규리그 경기에서 데뷔골을 폭발한 황희찬은 이날 토트넘과의 리그컵 32강전에서 처음 선발 출전에 풀타임을 뛰었다. 토트넘이 2-2 무승부 끝에 승부차기에서 이겨 16강에 올랐지만, '코리안 리거'만 놓고 보면 후반 교체 출전한 손흥민보다 황희찬이 더 빛난 경기였다. 팀에서 가장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친 황희찬은 2-2 동점골 장면에서

시발점 역할을 했다. 이런 가운데 '괴물 수비수' 김민재(페네르바체)도 터키 쉬페르리그에 일찍 적응해 꾸준히 출전하고 있다. 김민재는 페네르바체 이적 뒤 공식전 5경기 연속 선발 출전했다. 최근 3경기에서는 풀타임을 소화했다. 벤투호에 10월은 최종예선 최대의 고비다. 7일 시리아를 상대로 홈에서 3차전을 소화한 뒤 중동으로 장거리 원정을 떠나 12일 '난적' 이란과 4차전을 치러야 한다. 중동 팀과의 이번 2연전에서 승수를 쌓지 못하면 벤투호 앞에는 가시밭길이 펼쳐진다. 이런 가운데 핵심 전력인 유럽 리거 여럿이 동시에 상승세를 보이는 점은 대표팀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갯잎 한장 승부... 우승 과녁 '정조준'

2021 세계선수권 양궁 단체 안산, 또다시 '다관왕' 눈앞
남자 단체전도 역전 승전가

한국 리커브 양궁이 2021 세계선수권 단체전 3종목 싸움이 준비를 마쳤다. 안산(광주어대)과 김우진(청주시청)은 22일(현지시간) 미국 사우스다코타주 양크턴에서 열린 2021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사활제 혼성 단체전(혼성전) 준결승전에서 일본을 5-1(37-37 38-36 39-37)로 물리쳤다. 이로써 안산-김우진 조는 터키를

제압하고 올라온 러시아와 금메달을 놓고 격돌하게 됐다. 안산과 김우진이 결승에서도 이기면 한국 양궁은 혼성전이 처음 도입된 2011년 토리노 대회부터 6개 대회 연속으로 이 종목 금메달을 독식한다. 여자과 남자 단체전에서도 준결승 승전보가 이어졌다. 두 팀 모두 첫 세트틀 내주고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여자 단체전 준결승에서는 안산과 강재영(현대모비스), 장민희(인천대)로 이뤄진 한국이 프랑스와 슈트프 집전 끝에 5-4(53-57 51-54 54-53 55-53 <28+28>)로 이겼다. 경기 중계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현장에서 경기를 지켜본 대한양궁협회 관계자는 "장민희의 화살과 프랑스 선수 화살의 차이가 '갯잎 한 장 두께' 수준이었다"고 전했다. 여자 대표팀은 브라질에 6-0(53-51 57-49 55-51)으로 이긴 '난적' 멕시코와 결승에서 맞대결한다. 여자 대표팀은 2017년 멕시코시티 대회 이후 4년만의 단체전 우승에 도전한다. 2020 도쿄올림픽에서 3관왕에 오른 안산은 이번에도 혼성전과 단체전 결승에 올라 또 한 번 '다관왕' 등극을 눈앞에 뒀다. 오진혁(현대제철), 김우진, 김제덕(경북일고)으로 이뤄진 남자 대표팀도 단체전에서 대만을 6-2(53-57 57-52 56-51 57-56)로 제압하고 결승에 올랐다.

남자 대표팀이 결승에서도 이기면 2015년 코펜하겐 대회 이후 4년 만에 금메달을 따낸다. 한국 리커브 양궁은 지난 2019년 스페르토벤보스 대회에서 금메달을 혼성전에서만 1개 따내는 데 그쳐 올해 대회에서 자존심 회복을 이루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최강 한국 양궁이 세계선수권에서 금메달 2개 이상 획득하지 못한 것은 1987년 호주 애들레이드 대회(금메달 0개) 이후 32년 만의 일이었다. 혼성전과 남녀 단체전 결승은 한국 시간으로 25일 새벽 열린다. 컴파운드 혼성전에서는 김중호(현대제철)와 김윤희(현대모비스)가 준결승에서 인도에 156-159로 저 동메달을 겨냥하게 됐다. 연합뉴스

PS 막차... 벤치 능력이 좌우

프로야구 가을행 경쟁 치열
5위-8위까지 4팀 승차 춤춤

올해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에 출전할 팀의 윤곽이 거의 결정됐다. 선두를 질주하는 kt wiz는 창단 처음으로 한국시리즈 직행을 향해 큰 걸음을 내디딘다. 삼성과 LG의 2위 싸움은 시즌 막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삼성은 손가락 인대 부상으로 빠진 박해민의 공백을 공수에서 어떻게 메우느냐가 관건이다. LG는 등 근육 미세 손상으로 이탈한 원준 투수 앤드루 수아레즈가 돌아올 때까지 버티는 게 급선무다. '가을의 강자' 두산 베어스는 5연승을 질주하며 최근 10경기에서 7승 2무 1패로 4위로 올라섰다. 한때 7위로 처졌던 두산은 더 높은 곳을 향해 막판 스피드에 나설 전망이다. 시선은 공동 5위 NC 다이노스와 키움 히어로즈, 7위 SSG 랜더스, 8위 롯데 자이언츠가 벌이는 5위 경쟁에 쏠린다. 4팀은 승차 3경기 안에서 춤추며 늘어섰다. NC가 4연패, 키움이 6연패를 당한 바람에 포스트시즌 막차 탑승권이 걸린 5위 다툼은 더욱 격해졌다. NC의 박석민, 이명기, 권희동, 박

민우는 KBO 사무국과 구단 자체 정계로 올해는 물론 내년 초반까지 될 수 없다. 대체 선수들이 주전들의 공백을 메운 덕분에 NC는 중위권을 근근이 지키는 중이나 이 힘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알 수 없다. 키움은 역시 방역 수칙을 위반한 투수 한현희와 안우진을 올 시즌 안 쓰기로 했다. 가을 야구를 못 할 상황에 부닥치자 둘을 기용하겠다고 태도를 바꿨다. 선발 투수 들을 잃은 SSG 랜더스는 시즌 내내 부상 병동이다. 토종 원투펀치를 이룬 박종훈과 문승원은 팔꿈치 수술해 내년 6월이나 돌아온다. 외국인 투수 윌버 폰트마저 앞구리 부상으로 1군 엔트리에서 최근 빠졌다. 선발진 붕괴로 SSG는 남은 29경기에서 '내일이 없는, 오늘'만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롯데는 한화 이글스(5승 8패), KIA 타이거즈(5승 1무 6패)와의 7경기를 잘 풀어야 5위 경쟁팀과 격차를 좁힐 수 있다. 5위 싸움의 성패는 선수들의 집중력과 벤치의 지력에 달렸다. 냉철한 계산과 용병술, 승부를 걸 타임을 놓치지 않는 직감을 갖췄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지금까지 남긴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는 감독이 5위 티켓을 품을 자격을 얻는다. 연합뉴스



23일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1 KBO리그 NC와 키움의 경기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해 징계를 받은 키움의 우완 투수 안우진이 선발등판해 역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석재부

- 불상전문제작 (제주중문에서)
- 비석→ 직접가공 및 설치
- 석물→ 일절완비
- 돌하루방, 물허벅, 해녀상 일절가공
- 제주 전시장 (중문고등학교앞)
- 납골묘, 평장묘 전문

장례부

- 1) 1급 장례지도사 5명 보유
- 2) 장의차량 리무진 및 장의차 7대 보유
- 3) 제주의료원 협력업체
- 4) 서귀포의료원 협력업체
- 5) 24시간 출동 대기
- 6) 장례용품, 도우미
- 7) 매장 및 화장, 이장

대표 박복현 010-3698-0402, 010-3693-4333 E-mail. qhrgus4333@hanmail.net

중문 석재 장의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1834-5 Tel. 064-738-4333 Fax. 064-738-4336